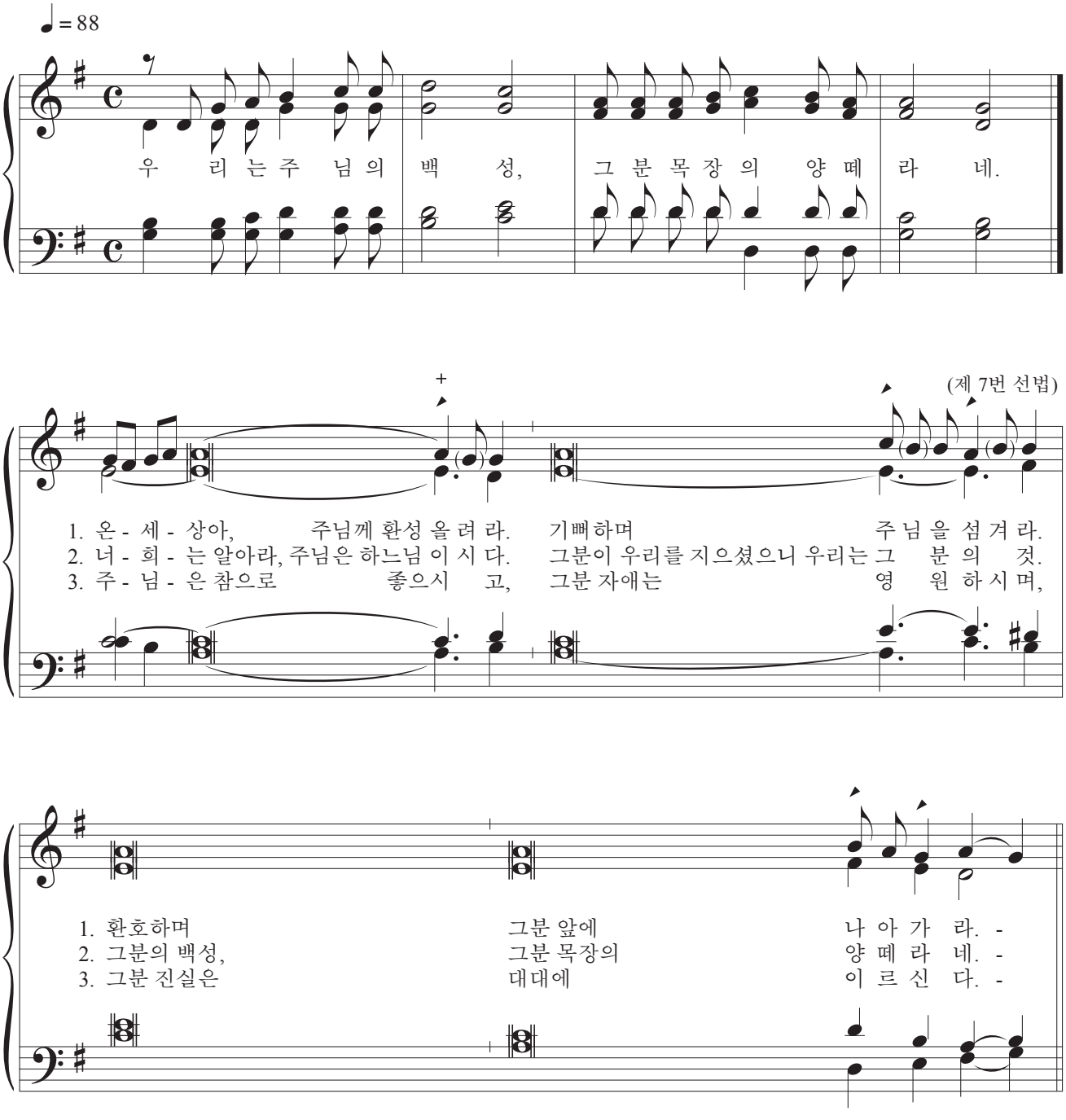부활 제 4주일 화답송(다)

우리는 주님의 백성

백 남 용



* 오늘 시편의 후반들은 모두가 짧아서 중간에 쉼없이 이어 노래함이 바람직합니다.